

# 김하성, 켈리 상대로 시즌 16호 아치...20-20까지 홈런 4개 남아

애리조나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15경기 만에 홈런  
2차전에선 3타수 무안타 1볼넷...시즌 타율 0.278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1회 선두타자 홈런으로 시즌 16번째 아치를 신고했다. 20 홈런-20도루 달성에는 홈런 4개 만을 남겨뒀다.

김하성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안타 하나를 홈런으로 때려냈다.

리드오프 김하성은 1회말 애리조나 선발이자 KBO리그 출신인 메릴 켈리와 마주쳤다. 초구 볼을 지켜본 김하성은 몸쪽으로 들어온 2구째 90.8마일(약 146km)의 포스트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넘겼다.

지난 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15경기 만에 터진 시즌 16호 대포이자 통산 5번째 1회

선두타자 홈런이다.

켈리를 상대로 손맛을 본 건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0클럽 가입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하성은 올 시즌 27도루를 기록 중이다. 홈런 4개만 더 쏘아 올리면 추신수(SSG 랜더스) 이후 역대 두 번째로 20-20을 달성한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된다.

이후 타석에서는 추가 안타를 뽑아내지 못했다.

김하성은 2회 2사 1, 2루에서 유격수 땅볼로 잡혔고, 5회 선두타자로 나와 삼진을 당했다. 7회 1사 1루에서는 2루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팀이 4-6으로 끌려가던 9회 1사 2, 3루 찬스에서는 애리조나 폴 시월드와 플라운트 승부를 벌였지만 1루수 뜬공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샌디에이고는 끝내 2점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패했다.

김하성의 후속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볼넷을 얻어 연결한 2사 만루에서 후안 소토가 좌익수 뜬공으로 잡혀 추격에 실패했다.

켈리는 애리조나가 6-4로 이기면서 시즌 10승(5패)째를 수확,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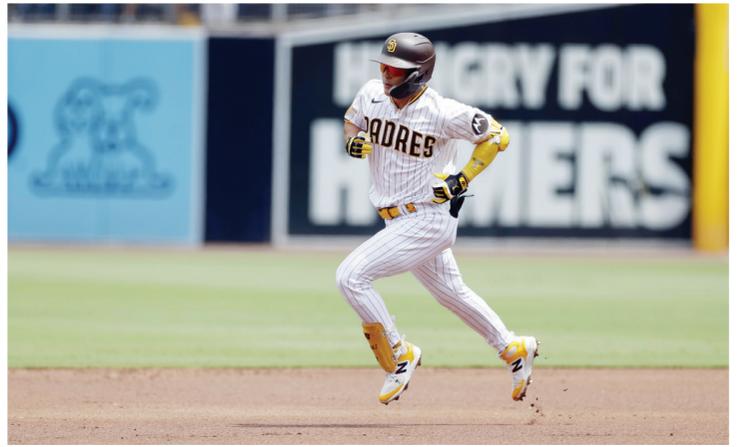
켈리는 2015-2018년 SK 와이번스(현 SSG)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다. KBO리그 통산 119경기 48승32패 평균자책점 3.86의 성적을 남겼다.

이어 열린 더블헤더 2차전에서 김하성은 네 차례 타석에 들어섰지만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8로 떨어졌다.

1회 3루수 땅볼, 3회 1사 1루에서 유격수 병살타로 잡혔다. 6회에는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팀이 1-8로 뒤진 8회 1사 1루에서는 애리조나 피터 스트레제에게 볼넷을 골랐다.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에 1-8로 졌다. 더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연승 경기 1차전 1회 말 1점 홈런(시즌 16호)을 친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김하성은 5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고 팀은 4-6으로 패했다.

헤더 2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시즌 전적은 59 승66패가 됐다. 뉴스

## 전남유도, 전국실업선수권대회서 금 2·은 2·동 2 획득

순천시청·여수시청 실업팀 활약

전남유도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양평, 양평운동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양평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일부 -57kg급에 출전한 순천시청 박다솔과 양서우는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양서우는 한 체급을 올려 -57kg급에 출전, 8강에서 신유나(광주도시철도공사)에 지도승, 준결승에서 김한솔(인천광역시청)에 기권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같은식구'인 박다솔을 만나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박다솔은 우승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일부 +78kg 신지영(순천시청)은 8강전서 조은나라(제주도청)에 절반승, 준결승에서 이은주(대구시체육회) 안다리 절반,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박다솔(포항시청)에 안다리 절반,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수시청의 활약이 빛났다. 여수시청은 남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 준



결승전에서 광명시체육회를 꺾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양평군청을 만나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66kg급에 출전한 심재민은 준결승에서 임은준에게 패해 동메달을 -100kg에 출전한 김영성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울버햄튼 황희찬, EPL 한국인 1호골...평점 7.1점

팀은 브라이튼에 1-4 대패...사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평점

한국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골을 신고했지만, 울버햄튼은 개막 2연패에 빠졌다.

울버햄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2023-2024시즌 EPL 2라운드 홈경기에서 1-4로 완패했다.

교체 명단에 오른 황희찬은 팀이 0-4로 뒤진 후반 10분 파비우 실바 대신 투입됐다.

황희찬은 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만회골을 넣었다. EPL에서 뛰는 한국 선수의 첫 득점이다.

브라이튼에서는 일본 대표 공격수 미토마 가오루가 맹활약했다.

미토마는 전반 15분 개인 돌파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또 후반 1분에는 페르비스 에스투피냐의 추가골을 도왔다.

기세가 오른 브라이튼은 후반 6분과 10분 솔리 마치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리에 췌기

를 박았다.

브라이튼은 개막 후 2연승을 달렸고, 울버햄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0-1 패배에 이어 또 지면서 첫 승에 실패했다.

경기 후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황희찬에게 평점 7.1점을 줬다.

울버햄튼에선 파블로 사라비아(7.2점)에 이어 마테오 쿠냐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점수다.

브라이튼에선 멀티골 주인공 솔리 마치가 9.7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토마는 8.8점이다.



## '캡틴 데뷔승' 손흥민 "긍정 에너지로 계속 나아갈 것"

토트넘, 맨유 2-0 꺾고 시즌 첫 승

경기 후 손흥민은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승리였다"며 "특별한 팀을 상대로, 홈에서 맨유를 이겨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팀은 모두가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상태"라며 "좋은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지금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와 2-2로 비겼던 토트넘은 맨유를 누르고 1승1무(승점 4)를 기록했다.

주포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떠나는 등 이수선한 상황에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손흥민은 우승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은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면서도 "우승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라고 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시즌 첫 승에 앞장선 '캡틴' 손흥민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2023-2024시즌 EPL 2라운드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축문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이타적인 플레이로 주장 선임 후 2경기 만에 첫 승리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슈팅은 1개에 그쳤으나, 4차례 킥패스를 기록했다.

## 두산 양의지가 돌아온다 이르면 오늘 키움전서 복귀

두산 베어스 주전 포수 양의지가 이르면 22일 복귀할 전망이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20일 잠실 구장에서 열리는 2023 신한은행 솔 KBO리그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양의지는 몸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주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 첫 날 등 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두산에 반가운 소식이다. 올 시즌 87경기 타율 0.323, 9홈런 44타점을 올리고 있는 양의지는 원 요격부 부상으로 지난 8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양의지가 빠져나가면서 타선은 물론 안방에서도 그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양의지가 이탈한 사이 두산은 9경기에서 3승6패로 고전했다.

이 감독은 "양의지는 현재 상태를 체크해보니 별 이상이 없다"며 "내일까지 상태를 지켜본 뒤 몸에 이상이 없으면 키움전을 앞두고 등 록하려고 한다. 선발 출전은 힘들고, 경기 후반 준비를 할 것 같다. 전체 조건은 몸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양의지는 22일 고척 키움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지난 12일 한화 이글스전부터 17일까지 KT 위즈전까지 5연패에 빠졌던 두산은 전날 NC에 4-1로 이겨 연패를 탈출했다.

올해 KBO리그 최고 선발 투수로 꼽히는 NC 에릭 페디를 6이닝 2실점으로 흔들고 거둔 승리라 더 의미가 있다.

## 메시, 美입성 한달 만에 우승 폴짜팀을 컵대회 우승 이끌어

마이애미, 내슈빌 꺾고 리그스컵 역대 첫 정상...승부차기 극적 승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미국 입성 1개월 만에 우승을 달성했다. 폴짜팀을 컵대회 우승으로 이끈 놀라운 성과다.

인터 마이애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내슈빌SC와의 2023 리그스컵 결승에서 전후반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9로 이겼다.

리그스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클럽들이 겨루는 컵대회로 2019년 시작됐다. 마이애미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구단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앞서 대회에서는 멕시코 구단이 우승했다.

메시는 리그 폴짜팀 마이애미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마이애미는 올해 MLS 정규리그에서 5승3무14패로 동부콘퍼런스 15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승점은 18점으로 서부콘퍼런스까지 MLS 29개 구단 중에서도 꼴찌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생제르맹을 떠나 마이애미에 입단한 메시는 이날 결승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다. 메시는 전반 23분 역

습 때 강력한 원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메시의 7경기 연속골이자 미국 무대 10번째 득점이었다.

마이애미는 후반 12분 동점을 허용했다. 내슈빌 파파 피코가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1-1로 전후반이 끝났고 승부차기가 시작됐다. 메시는 1번 키커로 나서 골을 넣었다. 내슈빌 2번 키커 랜달 릴이 실축했지만 마이애미 빅토르 울로아도 실축했다. 양팀 키커가 계속 골을 성공시키면서 9-9가 됐다.

9-9에서 마이애미 골키퍼 드레이크 켈린더가 골을 성공시킨 반면 내슈빌 골키퍼 엘리엇 파니코의 슈트는 켈린더에게 걸렸다. 이로써 마이애미가 우승을 차지했다.

